



1 믿을 수 없는 순간들! 1 '기생충'이 국제영화상에 호명된 순간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오른쪽)가 뜨겁게 포옹하고 있다. 2 극중 조여정 아들 역의 정현준 군이 아카데미 시상식 TV 생중계를 집에서 지켜보다가 환호하는 모습. 3 연세대 영화화이라리 학생들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이 확정되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LA(미국)·서울 | AP·뉴시스

## '기생충' 4관왕 이끈 영광의 얼굴

# “대사 멋지게 옮겨준 위대한 배우들”

송강호, 봉준호 감독 최고 동반자 최우식·박소담·장혜진 등 재발견 각본상 한진원 작가 세계가 인정

“대사를 멋지게 화면에 옮겨준 배우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모든 예술가(스태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기생충'의 '오스카 영광의 순간'에는 봉준호 감독만 있었던 게 아니다. 각본상을 받은 한진원 작가, 그리고 봉 감독의 치밀하고 섬세한 대사를 최고의 앙상블로 표현한 송강호와 조여정 등 배우들의 힘도 컸다. 또 제작사 바른손 E&A 박신애 대표,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이하준 미술감독(미술상), 양진모 편집감독(편집상) 등도 한국영화사를 새롭게 쓴 주역들로 꼽힌다.

### ●봉준호의 동반자 “송강호”

“위대한 배우”이자 “동반자”인 송강호가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을 일이다.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후 봉 감독은 “위대한 배우가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지 못할 영화였다”면서 주연 송강호에게 공을 돌렸다. 시상식이 끝나고 봉 감독이 무릎을 꿇고 송강호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카메라 포즈가 아직도 회자될 정도다.

송강호는 영화 속 기택 역을 디테일하게 연기한 덕분에 지난해 12월 미국 LA 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미국 영화배우조합(SAG)으로부터는 다른 출연 배우들과 함께 최고상인 앙상블상을 거머쥐었다. SAG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최고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7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엑설런스 어워드'를 받기도 했다.

송강호는 10일(한국시간) 아카데미 수상 이후인 이날 오후 LA의 더 러턴 웨스트 호텔에서 봉 감독을 비롯한 주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봉 감독의 20년 동안 그의 리얼리즘 변화를 목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꿈의 무대'를 밟은 '기생충'의 주역 최우식·이선균·박명훈·이정은·조여정·박소담·장혜진·송강호(위·왼쪽부터)가 사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또 다른 주역인 한진원 작가, 양진모 편집감독, 봉준호 감독, 이하준 미술감독, 제작사 박신애 바른손 E&A 대표.(아래·왼쪽부터) LA(미국) | AP·신화·뉴시스

격했다”면서 “기생충”이 “그 완성 지점에 와 있다. 시대에 대한 담구, 삶에 대한 성찰이 발전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조여정도 빼놓을 수 없다. 부잣집 박사장의 아내 역을 연기한 그는 빼어난 연기로 미국 뉴멕시코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이날 생일이기도 했던 그는 “훌륭한 영화로 아카데미에 온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었다”면서 감격해 했다. 이에 송강호는 “내일이 (내)생일”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최우식, 박소담을 비롯해 이정은은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날 봉 감독에 따르면 최우식은 북미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포 감독의 영화 출연을 논의 중이다. 최우식은 극중 대사(계획에 없던 건데)를 인용해 “계획하지 못했던 큰 이벤트에 너무 행복하다”며 웃었다.

송강호의 아내 역으로 출연한 장혜진과 이정은의 남편 역 박명훈 역시 관객에게는 아직 낯설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역의 자리에 우뚝 섰다. 박명훈은 이날 “기적 같은 하루”를 보냈으며 상기된 표정이었다.

### ●‘기생충팀’으로 불린 또 다른 주역

연출자와 배우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힘, 바로 스태프이다. ‘기생충’ 역시 스태프의 노력으로 완성됐고, 결실은 봉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쓴 한진원 작가의 각본상 수상, 이하준 미술감독과 조원우 세트디자이너의 미술상 및 양진모 편집감독의 편집상 후보로 맺어졌다. 이들은 이미 각 부문별 미국 조합이 주는 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한진원 작가는 봉 감독의 전작 ‘옥자’의 연출팀에 참여한 뒤 두 번째 공동작업으로 기쁨을 안았다. 그는 용인대 영화영상학과를 나와 2012년 임순례 감독의 ‘남쪽으로 튀어’ 소품팀 이후 영화 ‘판도라’와 ‘헬머니’ 연출팀에서 일했다. 한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료 조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 봉 감독과 회의를 하며 나온 이야기가 스파크처럼 나왔다”고 작업 과정을 소개했다.

이하준·조원우 콤비는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현실적 아픔을 풍자의 코미디와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로 버무린 영화를 뒷받침한 주역이다. 부잣집 가족의 세련된 저택과 가난한 가족의 반지하방의 살림살이를 미술과 세트로 표현하며 영화의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양진모 편집감독 역시 1월 미국 영화편집협회상을 받으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영화의 장면 장면을 막힘 없이 연결하며 하나의 명징한 스토리를 구현하는 힘이 편집에 있다면 양 감독은 감각적인 실력으로 이를 입증했다.

이는 곧 한국영화의 힘이기도 하다. 이하준 미술감독은 “한국영화가 정말 이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걸 느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기생충’의 주역들은 조만간 귀국해 한국 관객 앞에 나설 예정이다. 봉 감독은 “일정을 조율 중이고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annjoy@donga.com

## 오스카를 품은 별

3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 美 아카데미상 빛낸 작품·수상자들



제92회 아카데미 남여주연상은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왼쪽)와 ‘주디’의 레이디 젤위거에 돌아갔다. LA(미국) | AP·뉴시스

## ‘조커’ 호아킨·‘주디’ 젤위거 아카데미 남여주연상 영광

### ‘기생충’ 라이벌 ‘1917’ 3관왕 영예

제92회 아카데미상 각 부문 최종 후보자(자)이 베일을 벗은 1월13일까지만 해도 유력한 작품상 후보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등이 꼽혔다. 쟁쟁한 감독과 배우들이 힘을 모은 각 작품들은 여느 해보다 치열한 트로피 경쟁을 벌였다.

이날 시상식 막판까지 ‘기생충’과 경쟁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은 ‘1917’이다. 영화는 반전의 메시지로 관련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아카데미의 전통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기생충’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신 ‘1917’은 참혹한 전쟁의 비극과 인류애를 담아내는 거대한 규모를 과시하듯, 촬영상을 비롯해 시각효과상, 음향효과상 등 기술상 부문 3관왕을 차지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여주연상은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두루 받았던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와 ‘주디’의 레이디 젤위거가 각각 받았다. 호아킨 피닉스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으로만 알려졌던 조커의 비극적 슬픔을 열정적으로 드러내 찬사를 받았다. 레이디 젤위거는 전설적인 배우 주디 갈란드의 이야기를 그리며 첫 오스카 트로피를 안았다. 남우조연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의 브래드 피트가 영광을 누렸고 영화는 미술상까지 2관왕에 올랐다. ‘결혼 이야기’의 로라 던이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다음은 그 밖의 주요 수상자(자)

- ▲각색상=타이가 와이티티(조조 래빗) ▲편집상=‘포드 V 페라리’ ▲미술상=‘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의상상=‘작은 아씨들’ ▲음악상=‘조커’ ▲주제가상=‘(아임 고나)러브 미 어게인’(로켓맨) ▲장편 애니메이션상=‘토이 스토리4’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인 ‘부재의 기억’의 이승준 감독과 세월호 유가족인 오현주, 김미나 씨와 감병석 프로듀서(왼쪽부터)가 아카데미상 레드카펫을 밟았다. 사진출처 | 감병석 프로듀서 페이스북

## 세월호 희생자들과 레드카펫 밟은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과 유족 함께한 현장 수상 못했지만 세월호 아픔 알려

‘기생충’이 4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기 전, 또 다른 한국영화 관계자들도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이들의 결에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성들이 함께 섰다. 목에는 노란색 이름표들이 목걸이에 걸려 있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여성들은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경기 안산 단원고 장준영 군의 어머니 오현주 씨와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미나 씨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를 다뤄 한국영화

로의 처음으로 이날 제92회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른 영화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과 감병석 프로듀서와 함께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노란색 이름표를 한 데 모아 목걸이에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영화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이 감독 등 제작진과 유족들은 참사의 아픔과 이에 대한 관심을 깨끗하게 환기시켰다.

오 씨와 김 씨는 참사 유족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한다는 취지로 이 감독 일행과 해외 일정을 함께 소화해왔다.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노란 천과 함께였다. 1월 말 미국 뉴욕 등에서 열린 ‘부재

의 기억’ 상영회에 참석한 후 이달 초 LA로 이동해 현지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뷰 등에 나섰다.

‘부재의 기억’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각종 영상과 통화 기록을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며 국가의 부재를 되묻는 29분 분량의 단편 다큐멘터리영화다. 2018년 11월 미국 뉴욕 다큐영화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에 이어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이 감독과 유족들은 이날 SNS를 통해 “수상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단편다큐멘터리상 트로피는 캐롤 다이싱거 감독의 ‘러닝 투 스케이이트보드 인 어 워존’에 돌아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